



동반위-중흥토건, 협력사 ESG 경영지원 나서

동반위는 지난 13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동반위 사무실에서 중흥토건과 '2021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이경호 중흥토건 대표이사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한국투자증권-강소기업협, 상생협력 맞손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3일 한국강소기업협회와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영규 한국투자증권 IB그룹장(왼쪽)과 나종호 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BNK경남은행, 미혼모의 집 물푸레에 출산용품 세트

BNK경남은행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미혼모의 집 물푸레에 '신생아 출산용품 세트'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생아 출산용품 전달식에 참석한 전득표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 부장(오른쪽)이 김미영 물푸레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인사

- ◆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조세정책과장 변광욱 △재정관리총괄과장 이명선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개발금융총괄과장 지광철 △서기관 승진 △소득세 제과 박준영 △부가가치세제과 김영현 △산업경제과 김태웅 △국제기구과 박은결 △복권총괄과 김원대 △재정정보공개과 오정림 △추진총괄과 최형석 ◇기술서기관 승진 △시스템구축과 김성진
- ◆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소비자정책과장 신동열
- ◆ 한화건설 ◇승진 △전무 고강석, 김도완, 원상훈, 정지열 △상무 김민석, 김성수, 김진학, 손종현, 윤성호, 이은원, 이현수
- ◆ 국민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태원준 △논설위원 남도영 △논설위원 고세욱 ◇편집국 △정치사회담당 부국장 손병호 △경제산업담당 부국장 한장희 △영상센터장 겸 콘텐츠전략담당 부국장 이영미 △디지털뉴스센터장 정승훈 △정치부장 하윤혜 △사회부장 지호일 △경제부장 이성규 △산업부장 김찬희 △사회2부장 남혁상 △국제부 선임기자 신창호 △정치부 차장 천지우 ◇중고국 △부국장 김재중 △중고부장 신상목 △미선영상부장 전병선 △중고기획부장 박상원 △뉴콘텐츠팀장 맹경환 △기획위원 윤종식 △대외협력국 △기획위원 이동희

부음

- ▲나진관씨 별세, 나동연(전 양산시장)씨 부친상=14일, 경남 양산시 양산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6일 오전
- ▲김학윤씨 별세, 임상호(YTN 미디어사업국 매체협력팀장)씨 장인상, 오광식(TO- TOPELECTRONICS HONG KONG 상무)·윤일(SK건설 부장)씨 장인상, 김지영·김나영·김지나 부친상=14일 수원 연화장, 발인 16일 오전 9시
- ▲유광봉씨 별세, 유성원(한국투자증권 GWM전략담당 상무)씨 부친상, 김형근(전 KT지사장)·김성종(한외사)·정재훈(이안홀케어뉴트리션 대표)씨 빙부상 =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성모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오전 5시 30분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8명 '삼성행복대상'

삼성생명공익재단, 수상자 선정 상패와 상금 5000만원 씩 수여

사회에 본보기가 된 여성과 청소년들이 삼성행복대상을 받게 됐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4일 '2021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8일 한남동 삼성아동교양문화센터 강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에 상패와 상금 각 50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식 이후에는 수상기념 강연회도 개최한다.

삼성행복대상은 2013년부터 ▲ 여성의 권익, 지위향상 및 사회공익에 기여한 여성, 단체 ▲ 학술·예술 등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여성, 단체 ▲ 효 실천 또는 효 확산에 기여한 개인, 가족, 단체 및 청소년을 찾아 널리 알리고 격려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 여성선도상 장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왼쪽부터)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성창조상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가족화목상 김일주, 청소년상에 유현우·박하영·박근난·하혜정·박동규. /삼성생명공익재단

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성 창조상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가족화목상 김일주 ▲청소년상 유현우·박하영·박근난·하혜정·박동규 등 8명이다.

재단은 국내 각계 주요 기관과 전문 인사들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분야별 저명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업적 검증과 현장 실사 등 3개월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확정했다.

장필화 이사장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1984년 한국 첫 여성학과인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로 부임해 500여명의 여성학자

를 배출하고 국내 100여개 대학에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등 30여년간 한국 여성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을 주도해 온 공로로 여성선도상을 받았다.

김봉옥 위원장은 국내 1세대 재활 의학과 전문의로서 대한재활의학회를 역임했으며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치의', 전국 단위로 재활에 특화된 병원을 구축하는 '권역재활 병원'을 제안하는 등 우리나라 재활 의학을 개척하고 견인하며 여성창조상에 선정됐다.

김일주 씨는 경북 울릉군에서 출

로 되신 모친이 104세가 된 지금까지 46년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효행 실천 가족의 본보기가 돼 가족 화목상을 받았다.

몸이 불편한 외조모와 어머니를 모신 유현우 학생과 편모 슬하에서 효행과 선행을 실천하는 박하영 학생, 투병 중인 어머니와 동생들을 챙기며 가장 역할을 하는 박근난 학생과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위해 수어를 배우고 도와드린 하혜정 씨, 그리고 어려운 성장 과정에서 효를 실천해온 박동규 씨가 청소년상을 받았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전자, 주주가치 제고 노력 '한국IR대상' 최고상

체계적·적극적 IR활동으로 안정적 투자기반 확보 인정

LG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활동 노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14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에서 열린 '2021 한국 IR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IR대상은 한국IR협회가 2001년부터 매년 효과적인 IR활동을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IR자동 전반에 대해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LG전자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IR활동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고 안정적 투자 기반을 확보한 공로를 인



LG전자 대표이사 CFO(최고재무책임자) 배두용 부사장(오른쪽)이 대상을 받고 있다. /LG전자

정받았다. 지난해에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LG전자는 LG전자는 주요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애널리스트들과 만나 회사의 사업 방향성과 현황을 공유하고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등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기업 활동을 적극 알려왔다. 지난해 말 '엘지마그나 이파워트레인' 합작법인 설립과 올 4월 휴대폰 사업 종료 등 기업 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콘퍼런스콜을 실시했다.

ESG와 연관된 IR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 의결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ESG 콘퍼런스에 참여해 회사 ESG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 밖에도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디지털전환을 적용한 IR활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IR 활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IR활동을 관리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깨끗한나라-네이버 해피빈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깨끗한나라가네이버 해피빈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깨끗한 마음 칠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4일 깨끗한나라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담긴 미용티슈를 출시한 바 있다.

깨끗한나라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자 네이버 해피빈과 제휴를 결정했다.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학대 신고 알아보기 ▲캠페인 미용티슈 색칠하기 ▲캠페인 미용티슈 알아보기 ▲캠페인 응원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영역에 따라 매칭기부, 콩(해피빈) 지급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총청 대표' 이완구 前국무총리 별세... 향년 71세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활동 혈액암 '다발성 골수종' 투병



해 정치에 입문했다. 19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충남 청양·홍성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1998년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 입당, 대변인과 원내총무(원내대표)를 지냈다.

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충남지사로 당선됐으며,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세종시 건설 수장' 추진에 반발해 사퇴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인 2013년 4월 재·보궐선거로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온 뒤 2014년 5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활동했다. 원내대표 시절

총청권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힌 이완구 전 국무총리(사진)가 1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세.

1950년 6월 2일 태어난 충청남도 홍성 출신인 고인은 한 때 '포스트 J P(김종필 전 총리)'로 불릴 만큼 총청권 대표 정치인으로 꼽혔다.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1974년 행정고시 15회에 합격한 이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일한 고인은 경찰로 옮겨 최연소 경찰서장(31세) 및 경무관(39세) 기록을 세웠다.

1995년 2월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에서 물러난 고인은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에 입당

인 2015년 1월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에 지명돼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출신 19대 국회의원이었다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의 극단적 선택 시 남긴 '로비 리스트'에 이 전 총리 이름이 올라, 총리에 취임한 지 60여 일 만에 사퇴했다. 이 전 총리는 사퇴한 이후 정계에 복귀하지 않았다.

한편 고인은 지난 2012년 1월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고 투병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골수 이식을 받고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암이 재발해 투병 생활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코웨이 2021 KCSI 조사 정수기·침대 1위

코웨이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1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정수기와 침대 부문 1위에 올랐다.

14일 코웨이에 따르면 정수기 부문에서 지난 2017년부터 5년 연속, 역대 총 18회 1위에 뽑혔으며 올해 처음 조사 기업에 편입된 침대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되며 2관왕을 달성했다.

코웨이는 정수기 부문 소비자 조사에서 종합만족도 87.1점을 획득해 해당 부문 정상을 차지했다. '전반적 만족도', '요소 만족도', '재구매 의향' 등 모든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